

IT 장비/소재

소부장, 하반기 주도주는?

SK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이동주

natelee@sks.co.kr
3773-9026

AI CAPEX 사이클 지속과 국내 정책 훈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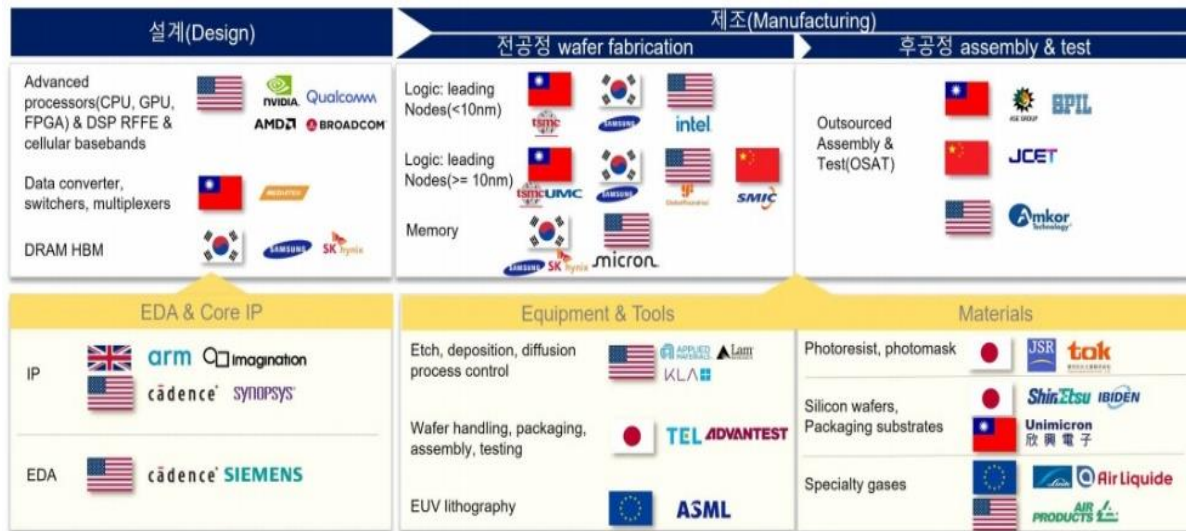
2025 년 주요 CSP 업체의 CAPEX 전망은 여전히 견조(Meta 상향, Alphabet/Microsoft/Amazon 유지)함이 확인되었다. 2026 년 효율적인 투자 배분으로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여전히 AI 인프라는 공급 부족을 겪고 있으며 Sovereign AI 로 국가 단위의 AI 생태계 구축은 활발해질 예정이다. 국내 역시 신정부 출범과 함께 AI를 신사업 육성 과제로 설정해 관련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세제 혜택, 투자 및 R&D 지원 정책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체 공급망 구축까지 구상에 있는 만큼 국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설계, 소재, 장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된다. AI 사이클의 훈풍과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는 시점으로 AI 관련 업체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 최선호주는 리노공업과 파크시스템이다.

Commodity, 기다림의 연속

매크로 불확실성과 관세에 따른 pull-in 이 하반기 commodity 수요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6 월이 지나는 시점에도 하반기 수요에 대한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전공정 업체는 valuation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1) 소재/부품은 높은 NAND 의존도 2) 장비는 전방 보수적인 투자 기조 아래 가동률이 탄력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낮아진 재고 부담으로 통상적인 상저하고 실적 사이클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회복의 강도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부족하다. 최근의 시장 종목 수급은 스토리텔링보다는 철저히 실적이나 수주로 증명하는 쪽으로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전공정 내에서도 대안을 찾는다면 1) 중국 로컬향 소재/부품 공급 업체 (4 월 24 일 중국의 자립화 수혜 발간 자료 참고) 2) Pure SK 하이닉스향 장비 업체가 2025 년 그리고 2026 년까지도 실적의 가시성이 높고 기울기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최선호주로는 각각 코미코와 브이엠이다.

Global 반도체 Supply chain 구조

(단위:)



자료:

주:

Compliance Notice

작성자(관리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5년 06월 05일 기준)

매수	96.82%	중립	3.18%	매도	0.00%
----	--------	----	-------	----	-------